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우리동네 개선문(17회) 제작기획서 보고

1. 제작형식 : 종합구성(20분)
2. 방송일시 : 2020. 1. 25. (토) 15:20
3. 제작담당 : 장욱진PD, 김현아 기자, 신국진 기자
4. 진 행 : 김현아 기자
5. 핵심메시지

방치되는 폐농자재, 담양군이 전국 최초 위탁 처리 근거 마련

6. 제작방향 : KTV 기자가 국민과 함께 민생 불편사항 점검 및 해결과정 취재
7. 주요내용

신국진 기자 취재내용

- 매년 약 32만톤의 영농 폐비닐이 발생되는데 그 중 7만톤은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고 있음. 정부와 지자체는 폐비닐이나 폐농약 용기를 집중 수거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농작물의 난방을 위한 보온 덮개의 경우 처리방법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.
- 처음으로 폐 보온덮개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담양군 사례 취재

인터뷰 : 담양군 연동마을 이장, 담양군의회 의장

8. 예산과목 : 3831-300-210-01(일반수용비)
9. 소요예산 : 199,000원(편당 제작비)

붙임 : 표준제작비 1부. 끝.

주무관

장욱진

편집팀장

김현근

취재팀장

대결 2020. 1. 28.

박준석

방송보도부장 전결

협조자

시행 방송보도부-129

접수

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한국정책방송원 방송보도부 / <http://www.ktv.go.kr>

전화번호 044-204-8172 팩스번호 044-204-8474 / chwjpd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